2003학년도 10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1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에서 설명한 장비가 아닌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동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정보는?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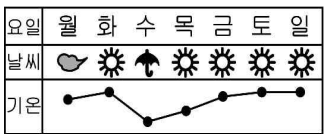
① 활동 목표 ② 참가 자격 ③ 중점 활동
④ 활동 방향 ⑤ 지원 기관

3.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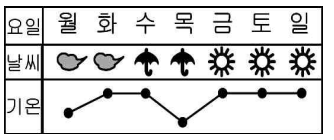
① 우리말의 어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②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③ 외래어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④ 외래어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⑤ 불필요한 수동 표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4. 주간 일기를 정리한 것으로 바른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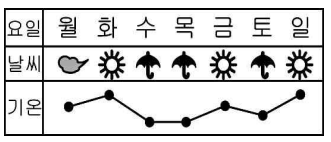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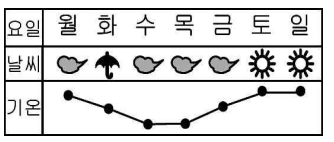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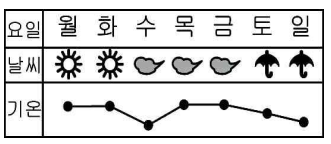
③



④



⑤



[5~6번]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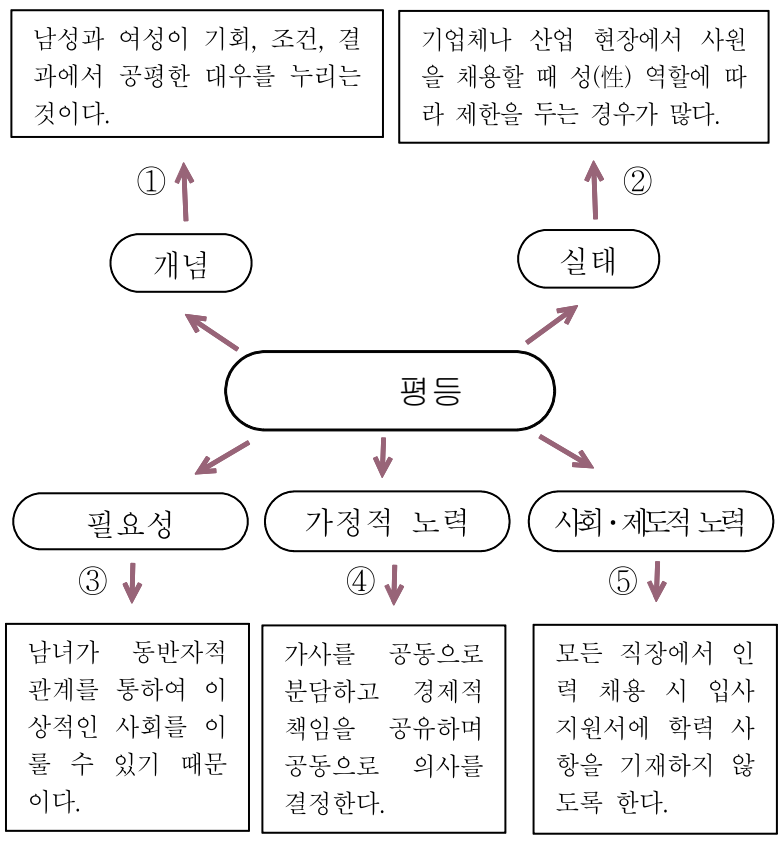
5. 남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논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②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여 감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③ 상대의 말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④ 적절치 못한 비유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⑤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6. 여자의 말에 대해 남자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2점]

① 에너지 사용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② 에너지 감축은 산업 활동에 압박을 줄 수 있다.
③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호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④ 협약 내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⑤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상 협약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다.

7. '양성 평등'에 대한 글쓰기의 구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8. <보기>는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글의 개요이다.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Ⅰ. 서론 : 우리의 결혼 문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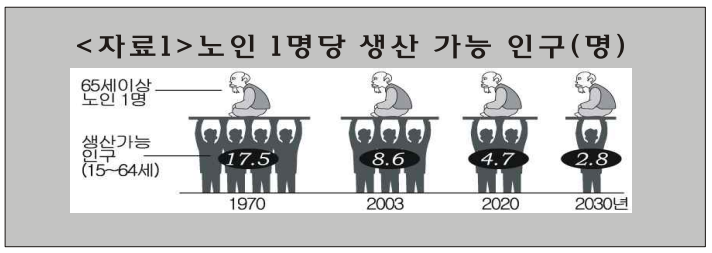
Ⅱ. 본론 :
1. 과소비적인 결혼 문화의 원인
가. 과소비를 추구하는 개인 심리
나. 허례허식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2. 과소비적인 결혼 문화의 문제점
가.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줌
나. 결혼 본래의 의미 퇴색
3. 과소비적인 결혼 문화의 해결 방안
가. 사회지도층 및 공직 사회의 솔선수범
나. 사회 단체가 주도하는 건전 혼례 실천 운동 강화

Ⅲ. 결론 :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강조

① 서론 부분에서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본론 1에서 과소비적인 결혼 문화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됨을 지적한다.
③ 본론 2에서 질 높은 무료 예식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④ 본론 3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건전 혼례 실천 운동 방안을 제시한다.
⑤ 결론에 결혼식 축하 화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계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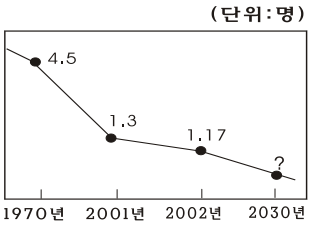
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자 료〉



-통계청, 2003-

<자료2>합계 출산율



-통계청, 2003-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을 낳는평균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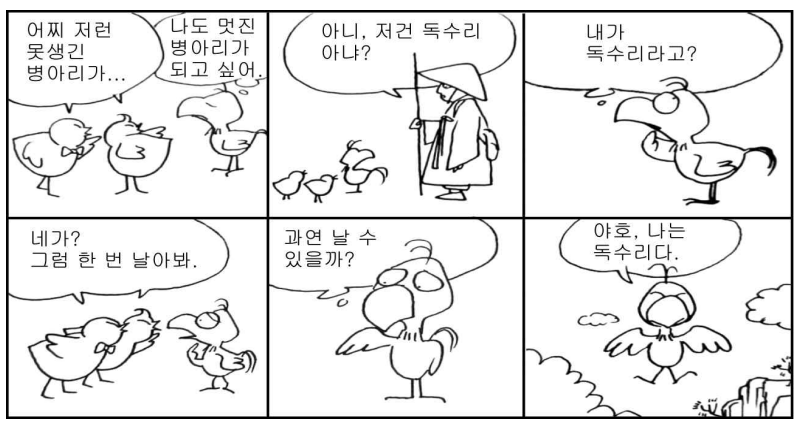
<자료3>건강보험비
(생산인구 1인당 부담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년 단축을 제시한다.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 현상을 지적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③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을 연관짓는다.
④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건강 보험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생산 인구 1인당 건강 보험비의 증가 현상을 연관지어 보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한다.

10. 다음 만화를 참고하여 글을 쓰고자 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어느 할머니
② 소매치기를 붙잡아 경찰서에 넘겨 준 용감한 시민
③ 방과후 활동으로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학생
④ 구급차를 위해 차를 한쪽으로 세워 길을 열어준 운전자
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한 시장

11. '2003 물의 해'와 관련된 공익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보기>의 조건에 맞게 완성한 것은? [2점]

〈보 기〉
◦ 경고의 메시지를 담을 것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물 절약'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것

① 하늘을 가득 담은 맑고 깨끗한 물을
사랑스런 우리의 아들 딸과 더불어
영원토록 마시고 싶습니다.
② 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가는 당신의 생명을 내버려두시렵니까?
③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자녀를 병들게 하시렵니까?
④ 한 방울의 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학생이 됩시다.
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맑고 깨끗한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의 해맑은 모습처럼 깨끗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당신과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12.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자기 소개서 ○○고등학교 ○학년 이름 : 홍길동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험(인물, 사건, 서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 박사님입니다. ㉠<u>그분이</u>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기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한 기업인입니다. 또한 그분은 일본의 ㉡<u>압력</u> 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고 부강한 국민만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독립 후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부(富)를 사회에 환원한 그는 누가 ㉢<u>알아주든 말든</u>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분이셨습니다. ㉣<u>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각종 사업에도 앞장서야 합니다.</u> ㉤<u>저는 ○○○ 박사님처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u>

① ㉠ : 주술 호응 관계로 볼 때 '그분은'으로 고친다.
② ㉡ : 의미상 '압제'로 바꾼다.
③ ㉢ : 선택의 의미이므로 '알아주던 말던'으로 고친다.
④ ㉣ :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한다.
⑤ ㉤ : 유사한 의미가 반복되므로 '헌신하고'를 삭제한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 가지에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u>운동장</u>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u>보름달</u>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신경림, 농무 -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마저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u>모래알</u>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듸!'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듸!'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u>도라지꽃</u>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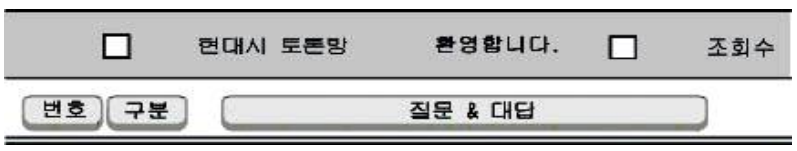
㉤<u>산꿩</u>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1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②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이 나타나 있다.
③ 내면의 갈등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14. 인터넷 웹사이트 토론방에서 (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 '나'가 아닌 '우리'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①	그것은 해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삶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여긴 까닭이겠지요.
	질문: '화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구절이 있나요?
②	'답답하고 고달프다', '산구석에 박혀 발버둥친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등으로 보아 알 수 있지요.
	질문: 처음에 '막이 내렸다'로 시작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③	이는 농민들의 흥겨운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예고의 의미가 있지요.
	질문: 그리고, 이 시의 공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④	운동장, 장거리, 도수장 등이 있지요.
	질문: 그럼, 이 시에서 '신명'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⑤	현실을 잊고자 하는 욕망의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요.

page 1 2[3] 4 5 6 7 8 9 10 글쓰기 수정

15. ㉠~㉤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보기>의 화자가 (나)의 벗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타당한 것은? [2점]

〈 보 기 〉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②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십시오.
③ 시간이 약이겠지요. 좀더 여유롭게 생각하며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④ 비록 적일지라도 그들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⑤ 우리네 삶은 일장춘몽이라던데, 세상사에 늘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17. <보기>는 (다)를 읽은 후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다.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 보 기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들은 서양 것은 덮어놓고 과학적이려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역법에 관한 것이다. 역법이란 해와 달의 변화 속에서 어떤 계기를 잡아 인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에서 어느 시각을 잡아 새해의 시작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나 달이 어떤 특수한 시작점에 있을 때를 잡아 새해의 시작이라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양력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으로는 낙제점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음력은 이와 정반대이다. 서양의 양력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적인 때가 묻어 있는 것과 달리 동양의 음력에는 나름의 과학성이 있다. 7월의 'July'와 8월의 'August'는 원

래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Julius Caesar)와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생일이 그 달에 들어 있음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8월의 날수도 원래는 30일이었으나, 황제의 생일을 이왕 기념하는 바에 더 길게 하기 위하여 연말에서 하루 더 가져다가 31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음력에서는 달 이름에 사람 이름을 붙여 놓은 일은 없다. 음력에서는 1월, 2월, 3월, 4월 등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 달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혹시 다른 이름을 쓴다 해도 '꽃 피는 달', '새 우는 달' 등과 같이 운치 있는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다. 또 음력에서는 한 달의 날짜수가 29일과 30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지만, 그 까닭은 순전히 자연 현상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 황제의 생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하여 30일이었던 달을 31로 만드는 인위적 조작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음력에서는 달마다 15일을 보름(望)이라 하여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날로 맞춰 놓았다. 그렇게 되면 초하루(朔)는 저절로 결정되고 그 전달의 크기가 29일이 될지 30일이 될지도 그에 따라 저절로 결정된다. 사람들의 뜻대로 29일이나 30일이 되는 일이 없다. 황제의 생월이라고 30일을 31일로 늘려 놓은 서양의 양력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한 달의 길이가 결정되는 우리의 음력 중 어느 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는 따져 볼 것도 없다.

(가) 그러면 왜 음력은 날짜가 계절과 잘 맞지 않는 걸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래 음력은 날짜를 달 모양의 변화에 맞게 만든 것이지 계절에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춥고 더운 계절의 변화란 태양의 운동에 따라 좌우된다. 음력에서는 이런 태양 운동을 24절기(節氣)로 나타내고 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하며 이어지는 24절기란 바로 태양 운동을 24등분하여 붙여 놓은 이름이다. 당연히 24절기는 각각의 계절에 정확히 상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음력 속에 들어 있는 양력인 셈이 된다.

우리는 그저 음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음력 속에는 양력 성분이 24절기로 들어 있다. 그래서 과학사에서는 동양의 음력을 태음태양력이라 부른다. 달의 운동을 날짜로 나타내며, 태양의 운동은 24절기로 나타냄으로써 해와 달을 함께 나타낸 훌륭한 역법인 것이다. 음력 날짜를 가지고 계절과 맞지 않는다고 타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은 절기로 알고 날짜로는 달의 크기만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에게 그날그날 달 모양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또 달의 모양은 밤의 밝기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수의 간만도 좌우한다. 또한 24절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수, 춘분, 곡우, 소만 등과 같은 중기(中氣)와,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등과 같은 절기(節氣)로 구분된다. 그런데 14일쯤에 절기만 들어있고 중기가 없는 달이 있으면 그 전달이 윤달이 되는 것이다. 음력에서 윤월을 넣는 방법도 바로 이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질서를 부여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동양인들이 수 천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음력은 과학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합리적인 체계이다. 달 모양의 변화에 따라 한 달의 날수를 결정한다든지, 태양의 주기를 고려한 절기에 따라 계절을 인식하는 점 등은 서양의 역법에 비해 음력이 상대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 윗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양력과 음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② 양력의 사용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③ 음력은 양력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과학적인가?
④ 음력의 사용으로 인한 문화적 현상은 무엇이 있는가?
⑤ 양력의 장점과 음력의 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1점]

① 음력과 조수 간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음력 한 달의 날짜 수는 인위적인 결과이다.
③ 음력과 양력은 한 달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
④ 양력에는 달의 이름에 사람 이름이 남아 있다.
⑤ 음력은 태양의 운동에 상응하는 24절기가 있다.

20. 윗글을 자료로 글을 쓰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천문학과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태양의 운행 원리'라는 소논문
② 전통 문화의 과학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통 속의 과학'이라는 보고서
③ 물리학의 한 분야로서 달의 운동을 연구한 '음력의 물리 현상'이라는 원고
④ 동양과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는 에세이
⑤ 일상 생활 속에서 과학을 생활화하자는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신문 기획 기사

21.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점]

보 기 〉

현상적으로 볼 때, 음력의 날짜는 꼭 계절과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강 한 달쯤은 왔다 갔다 하는 꼴로 보이는 것이 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력의 날짜는 계절과 잘 맞는다. 이것은 양력이 달의 운동보다는 해의 운동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역법이기 때문이다.

① 음력 절기의 과학성을 인식하고 있다.
② 역법이 문화적 소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음력의 실용적 측면만을 주장하고 있다.
④ 달과 태양의 상호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⑤ 계절과 양력과의 연관성을 수용하고 있다.

22. <보기>의 내용을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가장 잘 평가한 것은? [2점]

보 기 〉

4월이라 초여름이 되니 입하 소만의 절기로다. 비 온 끝에 햇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나무 잎이 피어날 때에 뻐꾹새가 자주 울고, 보리 이삭이 패어나니 꾀꼬리가 노래한다.

봄에 짠 무명을 이 때에 표백하고 삼베와 모시로 형편에 따라 여름 옷을 지어 두소. 벌통에 새끼를 치니 새 통에 분가를 시키리라. 천만 마리의 벌이 한 마음으로 왕벌을 옹위하니, 꿀을 먹기도 하겠지만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깨닫게 되도다. < 중 략 >

8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성 자로 돌아 서천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의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에서 들리구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을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하니 들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패고 여물들어 고개숙여 서풍에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추다래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볕 명랑하다. 안밖 마당 닦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 정학유, 농가월령가 중에서 -

① 절기에 따라 농사 일을 권장하는 위정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군.
② 기후의 변화와 농업 기술의 발달로 절기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군.
③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철마다 다가오는 세시풍속을 설명하고 있군.
④ 절기에 따라 해야 할 농가의 일을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군.
⑤ 농가의 행사와 세시풍속은, 그 당시의 민속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군.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는
선ᄒᆞ면 아니올셰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셜온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ᄃᆞᆺ 도셔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大平盛代(대평성대)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모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나리며 헤뜨며 바니니
져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을 얼핏드니
정신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려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결의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ᄉᆡ여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밖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시님 달이야커니와 ㉣궂은 비나 되소서.

* 모첨(茅簷) : 초가집
* 반벽청등(半壁靑燈) :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
* 져근덧 : 잠깐 사이에
* 헤뜨며 : 허둥거리며
* 바니니 : 서성대니
* 오던된 계성(鷄聲) : 방정맞은 닭소리
* ᄉᆡ여지어 : 죽어서

- 정철, 속미인곡 -

(다) 내 언제 신(信)이 없어 님을 언제 속엿관대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秋風)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이 하리오.

* 월침삼경(月沈三更) : 달이 기울어진 한밤 중

- 황진이 -

23. (가)~(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반복과 대조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② 개인의 정서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③ 일정한 음보의 반복으로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④ 민요적 성격으로 여러 사람이 향유할 수 있었다.
⑤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24. (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이별을 슬퍼하며 삶을 체념하고 있다.
② 주관적 감정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③ 자기 희생과 절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슬픔 속에서도 떠나가는 임을 축복하고 있다.
⑤ 이별의 상황에서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25.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받치고 살 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 안도현, 사랑한다는 것 -

① (나)의 화자는 기대감에 차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② (나)는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보기>는 임과 함께 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③ (나)는 의지적인 목소리가 느껴지지만, <보기>는 애절한 슬픔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④ (나)는 임을 그리워하며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보기>는 임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나)는 임이 화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보기>는 화자가 임에게 희생하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은 임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② ㉡은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③ ㉢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소망의 실현을 의미한다.
④ ㉣은 이별의 상황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⑤ ㉤은 외로운 심정을 달래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27. (다)를 <보기>와 같은 과정으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 감상하기 전 활동
☞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여 본다.
ⓐ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닌 기녀 문학의 대표자, '청산리 벽계수야~' 등의 시조를 읽어 본 기억을 되살려 봄

▶ 감상하는 활동
☞ 작가가 화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를 알아 본다.
ⓑ 달(月), 잎 소리 등을 통해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함을 알 수 있었음
☞ 화자의 심리 변화를 추리해 본다.
ⓒ '원망→기다림→기대감→안타까움'으로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파악함

▶ 감상한 후 활동
☞ 화자에게 편지를 써 보며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 화자에게 :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길수록 더 깊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멀리 떠나가 버린 이성 친구는 없지만, 지난 봄 멀리 떠나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달빛처럼 다가오더군요.
☞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을 찾아 공통된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 '동짓(冬至)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를 읽고 애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음

① ⓐ ② ⓑ ③ ⓒ ④ ⓓ ⑤ ⓔ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일상사에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말도 있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과 함께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도 있다. 또한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적 입장과 함께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할 뿐이다.'라는 우연을 강조하는 양자 역학자들의 비결정론적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이 인간사 자체가 양면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사물이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가치관의 형태는 무

수히 많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함에 있어서 미적 판단, 지적 판단, 기능적 판단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하나의 시점에서 판단을 고정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장자가 명가(名家, 논리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제자백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친구 혜자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혜자가 장자에게 "자네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야."라면서 반박하였다. 이에 장자는 그에게 "자네가 쓸데없음을 알기에 내 얘기는 '쓸데 있는' 것이네. 예를 들어 이 큰 대지 위에 자네가 서 있는 자리, 즉 설 수 있는 것은 겨우 발바닥 밑부분뿐이지. 그렇다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라 하여 발바닥 이외의 땅을 다 파 버리면 자네가 선 땅덩어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땅을 제외하고 모두 파내면, 자신은 오도가도 못함은 물론이려니와 땅이 밑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쓸모 있음[有用]은 쓸모 없음[無用]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무용과 유용, 유용과 무용은 인간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용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는 유용의 관점에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만남이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서로 상대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만남의 관계가 단절된 시점에서부터 상대의 필요성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까이 있던 사람의 부재(不在),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장자의 예화에서 세속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존재 가치를 한 방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만을 고집하여 아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28.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알맞은 것은? [1점]
① 예화를 들어 추상적인 논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상반된 주장을 비판한 후 절충적 관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다.
④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⑤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비교·대조를 통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에서 '혜자'가 '장자'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사물의 본질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네.
② 사물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겠네.
③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의 법칙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네.
④ 불필요한 영역까지 진리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네.
⑤ 체험과 사색을 통해 진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네.

30. 윗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② 자연 현상에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④ 자신과 타인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⑤ 일상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31. ㉠과 표현 방법이 유사한 것은? [1점]
① 내일은 무지개 찬란한 아침이 올 것입니다.
② 아이구, 잘한다 잘해!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니.
③ 인생은 끝없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마라톤입니다.
④ 현실의 고통이 심할수록 미래의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⑤ 태백준령을 따라 꿈틀거리는 통일의 기운이 솟구칩니다.

32.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교통 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진실을 증언해 주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체하게 되었다.
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한없이 기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③ 사슴은 자신의 우아한 뿔을 세상에 자랑했지만, 후에 사냥꾼에게 쫓길 때는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되었다.
④ 변방의 노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은 불행이었으나 후에 전쟁에 참가할 수 없어 목숨을 보존한 것은 행운이었다.
⑤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이용해 맘껏 쓸 때는 좋았으나 무절제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통스런 생활을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하는 것을 떳떳치 않게 여기는 북곽 선생이란 선비가 있었다. ㉠나이 40에 손수 교서한 책이 만여 권이고 아홉 경서(經書)의 뜻을 해석하여 저술한 책이 1만 5천 권이나 되었다. 그래서 천자(天子)는 그 의기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그 고을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동리자'란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천자(天子)는 그의 정절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어짊을 흠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 과부의 마을'이라 하였다. ㉡동리자는 수절 잘하는 과부라 일러 오지마는, 아들 다섯은 성이 다 달랐다.

어느 날 밤 그 다섯 아들들이, "개울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개울 남쪽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이 밤중에, 방안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북곽 선생의 목소리와 아주 흡사하구나"하고, 다섯 형제가 번갈아가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마침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꿇어 앉아서 시를 읊는다.

㉢원앙은 병풍에 노닐고 / 반딧불 깜박깜박 흐르는데
용가마 세발가마는 / 누구의 것 본뜬 것일까, 흥이 나는구나.

다섯 아들들이 서로 소근소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과부의 집 문에는 드나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분이라 그럴 리가 없겠고, 내 들으니 정나라의 성문이 헐어서 여우굴이 생겼다는데, 여우가 천 년을 묵으면 능히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니, 그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먼 하고, 다섯 아들은 다시 의논하기를, ㉣"여우의 신(腎)을 얻으면 대낮에도 형체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아양을 잘 떨어서 남을 즐겁게 한다고 하니, 우리 저 여우를 죽이고 나누어 가지자" 하고 다섯 아들이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곽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한쪽 팔을 비틀어 목에 얹고, 귀신처럼 춤을 추고 귀신처럼 웃으면서 문을 뛰쳐나왔다. 북곽 선생은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들 가운데 파 놓은 구덩이에 빠졌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허위적허위적 가까스로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목을 빼어 둘러 바라보니, 범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고는 코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선비란 참으로 구린 것이로군" 한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범의 앞으로 기어나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범님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조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남의 자식된 사람은 그 효도를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명성이 신룡(神龍)과 같으시어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일으키시는데, 저 같은 미천한 자는 그 위풍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니 범이 크게 꾸짖었다.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전에 내가 들으니 유(儒)는 유(諛:아첨하다)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악명이란 악명을 다 모아 내게 붙이더니, 이제 다급해지니까 면전에서 아첨하니 누가 네 말을 곧이듣는단 말이냐?"

천하의 이치는 오직 하나다. ㉤범의 성품이 진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도 착할 것이다. 네가 별의별 말을 다 해야 그것은 오륜(五倫)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고 해야 그것은 언제나 사강(四綱)에 있다. 그러나 도회지나 마을에 코 없고 발꿈치 없고, 얼굴에 자자(刺字:문신-범죄자라는 낙인)하고 다니는 자들이 모두 오륜을 지키지 않은 그 잘났다는 인간이 아니냐? 더욱이 밧줄, 먹실이며 도끼, 톱 따위 형구를 만들기에 겨를이 없는데도 그 악한 짓을 막을 수 없지 않으냐?

- 박지원, 호질 -

33. 윗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1점]

① 하층민들에 대한 탐관오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②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범의 신령스러움과 위엄을 표현하고 있다.
③ 당시 도학자들이 지니고 있던 허위 의식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우화적인 수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남녀간의 애정은 신분의 차이나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부를 축적한 계급의 등장이 가져온 물질주의의 만연과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어 가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34. 윗글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인물됨을 바르게 평가한 것은? [2점]

① 다른 사람의 힘을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인물이군.
②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인물이군.
③ 상황에 따라 속내를 감추고 말을 바꾸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이군.
④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융통성이 없고 어리석은 수주대토(守株待兎)격의 인물이군.
⑤ 삶에 대한 목표가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인물이군.

35. 윗글을 희곡으로 각색한다고 할 때,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동리자의 경우, 대사를 보강하여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한다.
② 어리석은 인물을 풍자하는 희극으로 구성하여 웃음을 자아내도록 한다.
③ 북곽 선생의 행동을 과장하여 희화화(戱畵化)된 성격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④ 연극의 시작 부분에 작품의 상황에 대한 나레이터의 해설을 첨가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⑤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갈등, 북곽 선생과 다섯 아들의 대화 등을 넣어 극적인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36. 윗글의 '범'과 <보기>에 등장하는 '말뚝이'의 말하기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2점]

〈 보 기 〉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廛)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래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깍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平野名] 거이 낚시 걸 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훤화(喧譁)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훤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 연죽전 : 옛날에 담배를 팔던 가게
* 양칠간죽, 자문죽, 희자죽, 연변죽 : 각종 담뱃대
* 재령 : 황해도 재령군
* 훤화(喧譁) : 지껄여 시끄럽게 떠듦

① 말뚝이는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나무라지만, 범은 우회적으로 나무란다.
② 말뚝이는 상대방을 강하게 질책하지만, 범은 기분을 고려하면서 타이른다.
③ 말뚝이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범은 처지를 무시하고 이야기한다.
④ 말뚝이는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여 놀리지만, 범은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나무란다.
⑤ 말뚝이는 상대방에게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범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한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당시 사회에서 갖춰야 했던 이상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② ㉡ : 열녀로 알려졌지만 부정한 생활을 일삼고 있음을 암시한다.
③ ㉢ :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 :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구하려는 자식들의 정성을 보여준다.
⑤ ㉤ : 자연의 이치에 따라 범과 인간의 본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과거에 우리가 지켜온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던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던 두레, 계, 향약 등의 미풍 양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기는커녕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가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금 우리가 자원 봉사를 하려는 것도 이러한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원 봉사의 기본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쁨의 손을 잡는 것이다.

자원 봉사라는 용어의 어원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나타내는 라틴어 '볼룬투스(voluntus)'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국가 권력이나 어떤 권위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인 동시에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활동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자원 봉사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먼저 자원 봉사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는 자신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확실히 파악한 후,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힘들고 고된 일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봉사자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원 봉사는 남을 돕는 자선(慈善)과는 다른 것이다. 자원 봉사를 '남을 돕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자원 봉사는 내 이익을 희생하여 이루어진다'는 고정 관념에 젖기 쉽다. 나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원 봉사를 마음먹고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월감 때문에 받는 자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편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되어서는 자원 봉사의 효과는 반감된다. 자원 봉사는 우월한 측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봉사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하게 되는 평형 장치이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점]
① 자원 봉사의 영역
② 자원 봉사의 어원
③ 자원 봉사의 필요성
④ 자원 봉사자의 가치관
⑤ 자원 봉사와 자선의 개념 차이

39.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쿵더쿵 방아나 찧어 / 거친 밥이나마 지어서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고 / 남거든 내가 먹으리.

②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가세.

③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④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親疏) 다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뤘네.

⑤ 도리도리 도리 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五)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 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40. (가)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깨끗한 사회,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② 고통이 지나면 새로운 행복이 기다립니다.
③ 당신의 작은 사랑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④ 이웃 간의 인사는 밝은 사회의 시작입니다.
⑤ 네 일이라 미루기보다 내 일처럼 먼저 합시다.

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자원 봉사자의 태도가 아닌 것은? [2점]
①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특수한 필요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③ 한두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④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⑤ 지역 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42. 윗글을 읽고 난 후,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영철 : 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 봉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봉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② 재현 : 방학 동안에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는 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민희 :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풍양속 중에 어떤 형태의 활동들이 있었는지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겠다.
④ 영수 : 학교에서 봉사 활동 계획에 따라 주어진 시간의 봉사 활동을 마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봉사 활동 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⑤ 승미 : 자원 봉사 활동이 힘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 수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가을에 더욱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막혔던 사연들을 띄우고 예식장마다 만원을 사례하게 된다. 우리 절 주지 스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가을에 몇 번인가 주례를 서게 될 것이다.

결혼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모르고나 치를 형벌 같은 것이라고 씁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고 제법 인류학자 같은 말을 하는 이도 있다.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선량한 상식인은 훨씬 많다.

여름내 보이지 않던 ㅈ양 이 며칠 전에 불쑥 나타났다. 전에 없이 말수가 많아진 그는 이 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소에 결혼 같은 것은 않겠다고 우기던 그라 장난삼아 이유를 물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늘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좋아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그 뜻에 복이 있으라고 빌어 주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인간사(人間事)에는 ㉡그늘이 진다. 우수(憂愁)의 그늘이 진다.

그런데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사람은 분명히 홀로 태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혼자서 죽어 간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도 혼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도 저마다 홀로 서 있듯이, 지평선 위로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은, 시인의 날개를 빌지 않더라도 알 만한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업(業)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따로 해야 되고 행동도 같이 할 수 없다.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인연의 주재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도그마이기에 앞서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될 우주 질서 같은 것.

죽네 사네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난 사람들도 그 맹목적인 열기가 가시고 나면, 빚이 바랜 자신들의 언동(言動)에 고소(苦笑)를 머금게 되는 것이 세상일 아닌가. 모든 현상은 고정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늘 함께 있고 싶은 희망 사항이 지속되려면,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서로 얽어매기보다는 혼자 있게 할 일이다. 거문고가 한 가락에 울리면서도 그 줄은 따로따로이듯이, 그러한 떨어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3. 윗글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내면의 갈등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② 현상에만 얽매이는 세상 사람들을 은근히 비꼬고 있다.
③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있다.
④ 주관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 주체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
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자세를 깨닫게 하고 있다.

44. <보기>는 작가가 ㅈ양 의 결혼식에 주례사로 작성한 글이다. 작가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2점]

<보 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지기 전에 두 분은 홀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두 분이었기에 오늘 이렇게 부부의 연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그 기쁨과 행복을 오래오래 지킬 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숙명적인 길입니다. 서로가 참으로 사랑하기에 부부가 되었으니, 늘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맘도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떨어짐이 있어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떨어져 바라볼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 줄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떨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삶과 존재를 인정해 주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상대편의 차이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지켜 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지켜 가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5. ㉠, ㉡을 <보기>와 같이 사전을 이용하여 의미를 파악했을 때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두다 [두어(둬[둬]), 두니] 동
①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②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 따위를 주다.
③ 어떤 것을 논쟁이나 감정, 언급의 대상으로 삼다.

그늘명
①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②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
③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

① ㉠은 '두다' ①의 의미로 ¶"그 사건은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합시다."의 용례가 있다.
② ㉠은 '두다' ②의 의미로 ¶"옆으로 좀 사이를 두고 나란히 붙은 미닫이가 또 하나 있다."의 용례가 있다.
③ ㉡은 '그늘' ①의 의미로 ¶"이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의 용례가 있다.
④ ㉡은 '그늘' ②의 의미로 ¶"얼굴에 그늘이 서리다."의 용례가 있다.
⑤ ㉡은 '그늘' ③의 의미로 ¶"그는 언제나 형의 그늘에 묻혀 지냈다."의 용례가 있다.

46. 표현과 발상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으나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볕을 뿌리고 있었다.
② 이 약은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되고 맵거나 짠 음식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심마니, 한미르, 미스다찾니, 까치네, 다음, 야후, 알타비스타 등은 검색 엔진이면서 요즘에는 포털사이트도 겸하고 있다.
④ 유산균과 젖산의 보고인 한국의 김치는 발효 식품이지만 김치와 유사한 일본의 기무치는 소금에 야채를 절인 단순 저장 식품이다.
⑤ 어려움을 참고 극복한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마치 땀 흘려 정상까지 오른 사람만이 등산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이치와 같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 작부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영달은 백화가 잘 걷지 못하자 그녀를 업고서 산길을 걸어 감천 읍내에 도착한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 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휙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 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땜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 섰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4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등장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사건 밖에서 사건의 내용을 관찰하여 제시한다.
③ 인물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독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사건에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⑤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충하기도 한다.

48. 윗글을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할 때, 배우들에게 주문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2점]

① '정씨'는 고향에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각되도록 연기했으면 좋겠어.
② '백화'는 시골을 떠돌아다니는 작부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때로는 순수함이 배어 있는 연기가 필요해.
③ '영달' '정씨' '백화'는 서로간의 처지를 이해하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리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해.
④ '노인'은 표정 연기에도 신경을 써서 전달자로서의 입장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⑤ '영달'이는 공사판을 찾아 돌아다니는 무력한 서민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해.

49.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점]

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이야. 개발 붐에 의해 '삼포'가 과거의 흔적도 없이 변해버렸거든.
②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아야겠어. 그러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③ 결말 처리 방식이 인상적이야. 여운을 통해 등장 인물의 내면 세계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거든.
④ 작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
⑤ 산업 사회라는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산업화가 초래한 고향 상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거든.

50.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2점]

① 백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없어요. 삼포로 함께 가요."
② 백화는 기쁜 듯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 당신과 함께 고향으로 갈 수 있으니 좋아요."
③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예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④ 다가온 백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여비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⑤ 백화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영달에게 다가왔다.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아름답게 동행해요."

51. ⓐ~ⓔ 중, 상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체나 규모가 큰 소재들을 다루는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조각가들은 조그맣게 축소된 조각을 점토나 밀랍으로 만들어 본다. 그것을 '마케트'라 부른다. 그런데 이 작은 마케트들은 조각가가 작품을 구상하는 데 매우 쓸모가 있다. 특히 조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인 실공간(Positive space)과 허공간(Negative space)의 변화를 보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조각에서 실공간이란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재의 공간을 뜻하고 허공간이란 작품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이 이루어내는 조형적인 가상공간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개'에서 개의 몸과 사지(四肢)가 차지하는 부피는 실공간이 되고 몸과 바닥 사이, 사지 사이의 공간 등은 허공간이 되는 셈이다. 노자가 말하던 그릇과 수레바퀴의 빈 공간처럼 이 허공간은 조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이 허공간에 어떤 다른 물체가 놓여 그 공간을 훼방 놓고 있다면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조각에 필요한 것이 이 실공간이나 허공간만은 아니다. 한 점의 조각이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아무 것도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피라미드보다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 여기 저기에 있는 빌딩 앞의 조각들의 일부는 바로 이런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 때문에 사방 팔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조각을 제한된 방향에서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조각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잠식되어 버린 것이다. 그럴 경우 조각은 환조라기보다는 ⓔ부조에 가깝게 되어 버린다.

조각은 입체다. 그러나 조각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입체라는 이 간단한 생각을 조각가들이 깨달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조각이 건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회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도 오래 걸렸다. 미켈란젤로는 이에 대해 회화가 구도상의 문제에서 부조의 효과에 접근할 때는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부조가 회화적인 효과를 내려고 든다면 그것은 훌륭하지 못하다고 한 적이 있다. 이는 회화란 평면 위에 3차원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조 같은 입체감을 가져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부조가 평면적인 회화를 흉내 내는 것은 넌센스라는 뜻이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도 대다수의 조각가들은 입체가 아니라 표면의 효과가 얼마나 그럴 듯한가에 매달렸다.

조각이 표면 효과가 아니라 입체 효과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로댕이었다. 영화 <까미유 끌로델>에서도 로댕은 끌로델이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보고 ㉡'표면을 보지 말고 윤곽을 보라.'고 말한다. 로댕은 인체의 각 부분을 단순한 평면으로 생각지 않고 내부에 있는 볼륨이 터져 나올 듯이 표현할 때에야만 인체가 단순한 표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꽃과 같이 밖으로 피어나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조각은 건축과는 별도의 영역이며 회화와도 구별된다.
② 자코메티의 '개'는 조각의 공간 이해에 적합한 작품이다.
③ 피라미드를 조각품으로 감상할 때 공간 배치가 잘못되었다.
④ 조각가들이 조각의 특성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⑤ 작품의 공간적 변화를 보기 위해 조각가들은 마케트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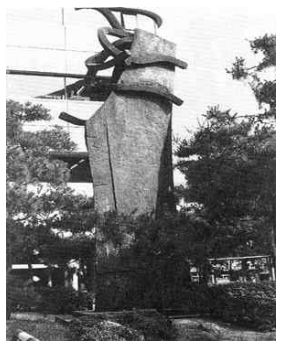
5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가)



(나)



① 정환 : (가)를 (나)와 같은 환경에 배치하였다면 건물에 종속된 느낌을 주었을 거야.
② 세리 : (나)는 건물과 주위 나무로 둘러싸여서 작품의 허공간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③ 영표 : (가)는 넓은 공원에 조각품을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입체성이 더욱 살아나는 것 같아.
④ 미현 : (나)를 (가)처럼 탁 트인 공간에 배치하였다면 작품을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⑤ 지성 : (나)의 경우는 허공간보다는 실공간이 강하기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강렬한 것 같아.

54.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속담이 쓰인 것은? [2점]

①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댕기 끝에 진주'처럼 꼭 감추고 있니?
② 운동복 입고 구두 신은 모습이야말로 '개발에 주석 편자' 격이야.
③ '물은 차면 넘친다'고 사람의 일도 전성기가 지나면 쇠퇴하기 마련이야.
④ '남의 장단에 춤춘다'고 하더니 도대체 네가 줏대 있게 하는 일이 뭐니?
⑤ '단 솥에 물 붓기' 식으로 이미 기울어진 일을 아무리 도와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55.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2점]

① 대상의 실공간에 주목하지 말고 허공간에 주목하라.
② 작품의 전체적 인상보다는 표면적인 형태에 치중하라.
③ 대상 그 자체를 중시하지 말고 대상이 놓일 위치를 중시하라.
④ 외부적 질감보다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에 주목하라.
⑤ 회화적인 효과에 치중하지 말고 입체적 질감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라.

56. ⓐ~ⓔ 중, 내용상 가장 이질적인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민족이 한국어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개별 언어 한 가지를 쓴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한국어에는 녹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종족은 무지개의 빛깔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한다. 우리의 옛 기록에는 무지개를 백색이나 오색으로 표현하였고, 최근에는 일곱 가지 빛깔로 표현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지개가 실제로는 어디 일곱 빛깔뿐이었겠는가? 과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빛깔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개를 언어로 추상화할 때 문화권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무지개라는 외계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문화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한자의 청록(靑綠)에 대해 우리말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 '푸르다'는 말뿐이다. 하늘도 '푸르고', 풀도 '푸르다'라고 표현한다. 빛깔의 색상이 엄연히 다른데도 이 두 가지 빛깔에 대한 우리말은 '푸르다'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인식의 차이이며 문화의 차이이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사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친·외·내종·외종'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cousin'으로 이를 통틀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일가·재종·삼종까지도 뜻할 수 있다고 한다. 가족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말이 저들보다는 좀더 ⓒ자세한 편이다.

그러한 관계를 'cousin'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나타내기보다는 사촌은 물론 가족 관계를 좀더 자세히 표현하여 의미를 ⓓ나눈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생활이고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낱말에서만이 아니라 동사 활용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우리말에는 피동형이 발달되지 않았다.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머리를 깎이러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또 '머리를 깎였다.'는 표현도 잘 하지 않는다. '머리를 깎으러 간다.'거나 '깎았다'라고 말한다. 얼핏 보면 피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머리를 분명히 이발사에게 깎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발사는 제 마음대로 남의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다. 주인공인 내가 깎으라고 해서 깍은 것이니 깎은 주체는 '나'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는 '머리를 깎았다.'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스로가 깎은 것이 아니라 남을 시켜 깎은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누가 '머리를 깎이었다.'고 표현하였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머리를 깎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와 유사한 예들이 통사 구조에도 나타난다. 영어나 중국어와 우리말은 주술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가 온다.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우리말의 경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와 네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밝힌다. 이에 비해,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나온 뒤에 목적어인 상대가 나온다. 이러한 통사 구조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두 언어군 사이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차이이고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5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우리말은 능동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② 우리말과 중국어는 문장의 어순이 다르다.
③ 일부 색깔은 우리말보다 한자어가 더 분화되었다.
④ 의사 전달 면에서는 우리말의 어순이 더 유리하다.
⑤ 친족 관계 어휘는 영어보다 우리말이 더 섬세하다.

58. ㉠과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보 기>

진희 : 성환아, 넌 날 어떻게 생각해?
성환 : 음, 난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이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진희 : 더 뭐? 빨리 말해봐.
성환 : …… 웃겨!
진희 : 뭐!

① 적절한 수식어는 의사 소통에서 중요하다.
②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③ 우리말의 어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④ 서술어는 의미 전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⑤ 대화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9.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한 수행평가 장면이다.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학생은? [2점]

<보 기>

교 사 : 이 글의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하나 : 네, 언어는 그 민족의 세계 인식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 사 :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정보라 : 무지개 색깔을 각 민족마다 달리 인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 사 :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최보람 : 네,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적 수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 사 :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말에 반영된 언어적 특징을 이 글의 내용 밖에서 한 번 들어볼까요.
한우리 : 대표적인 것이 영어보다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한 점입니다.
교 사 :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까요?
이시내 : 우리말에서는 높임 의식이 발달했지만, 상대적으로 영어에서는 우리말에 비해 높임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① 김하나 ② 정보라 ③ 최보람
④ 한우리 ⑤ 이시내

60. ⓐ~ⓔ 중,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 : 연유(緣由)된
② ⓑ : 표현(表現)한
③ ⓒ : 섬세(纖細)한
④ ⓓ : 분석(分析)한
⑤ ⓔ : 함축(含蓄)된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